

### 간화선 지도인력 양성과정 이수해도 지도 자격 주지 않기로

조계종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부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 전행위원회는 7월 12일 봉화 출사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성 과정에 지원해 1·2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양성과정에 대한 '이수증'만 주기로 하고 소정의 자격부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래 계획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치면 지도자격이 부여되고, 포교원이 개발한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성과정 신청자 중 미등록 사설사찰 관리인 및 관리인, 기본교육기관 미 이수자(1995년

이후 출가자), 사미(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자 포함), 타종단 소속, 서류 미비자(전국선원수좌회 인정 선원장급 이상의 추천서 미비) 등을 제외한 신청자는 모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양성과정 신청자 서류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41명(스님 95명, 재가자 46명) 신청자 접수가 완료됐다. 소임별로 보면 주지가 27명, 선원수좌가 14명, 기타 소임이 100명이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스님이 31명이었으며, 박사과정에 있는 스님이 5명, 석사 학위자가 5명, 석사 수료자가 12명 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교수 4명, 강사 6명, 전현직 교사 5명, 포교사 13명, 종무원 4명, 기업인원 이상 6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도 6명이나 포함됐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지관 총무위원장을 비롯,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명숙 총리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해정 교정원장, 지관스님, 한총리, 김희중 위원장, 사진제공-국무총리실

### 지관원장 한명숙 총리 초청 만찬 참석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월 10일 한명숙 총리 초청으로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와 만찬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종교계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문화와 사회

통합의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관 스님을 비롯, 김희중 총주교 주교회의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이해정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 태고종 개혁 방안 운산 총무원장에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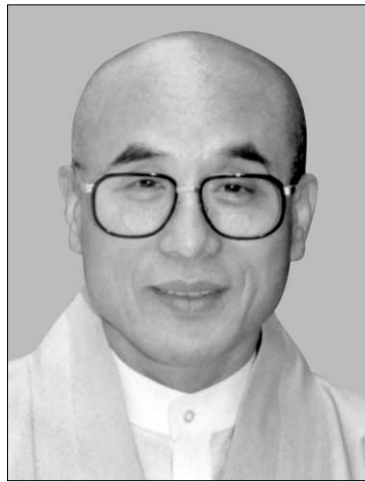
## “득도 자격 기준 · 재교육 강화”

무속행위로 물의를 빚은 황룡사 사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태고종이 종단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모색을 위해 7월 11~12일 양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종단 간부 및 중진 스님 연찬회를 열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부원장 자월스님, 사정원장 월은 스님 등 50여 중진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종단을 개혁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사찰 및 승려 정비 △승려의 득도제도 개선 △사찰 등록제도 개선 △승려의 수행 및 교육제도 강화 △사찰분담금 및 승려 분담금 징수제도 확립 △전통사찰(종단공설)의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태고종 비전 2010'을 발표했다.

새로운 도약과 진로의 모색이 담겨져 있는 '태고종 비전 2010'을 통해 전통종단으로서 뿌리찾기에 팔을 걷어 붙인 태고종 행정수반 운산 총무원장 스님에게 종단의 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들어보았다.

▲ '태고종 비전 2010'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무원장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2009년까지 종단 개혁을 위한 초석 작업을 마친 뒤, 2010년 새 총무원장이 취임하면 그 토대 위에서 태고종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자는 취지로 '태고종 비전 2010'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신규 사찰의 등록은 창건주가 신청하고 교구 총무원에서 서류만 받아 대신해 왔으나 앞으로는 총무원에 등록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현지에 나가 사찰의 재산상황, 운영방법, 창건주나 주지의 자질 등을 정확히 조사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찰에 한해서만 해당지역 총무원장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태고종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예산 확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찰과 종도가 내는 분담금만으로 종단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1년에 5만원 정도 내고 있는 승려의 무급을 대폭 인상해 종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로 사용할 것이며, 사찰 분담금은 연초에 총무원별로 개별 상담한 뒤 액수를 사세에 따라 책정해 징수되면 종단의 부대 사 업비로 쓸 생각입니다.

주요 골격은 첫째, 법란극복을 위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는 과거청산 작업 추진, 둘째 정정승가 구현, 셋째 견고한 승가공동체 정립, 넷째 수행풍토 조성, 다섯째는 사회교회화 능력의 배양입니다.

▲ 제일먼저 개혁해야 할 분야는?  
-스님도 사람이므로 불교 포교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도들의 재교육과 득도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백여명의 규모로 개혁위원회를 이달안으로 조직해 3천여 사찰과 7천여명이 달하는 승려 운영 실태를 연말까지 일제 조사해 비불교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가 있는 사찰이나 승려는 과감히 정리할 것 입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법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 '비전 2010' 발표...신규사찰 등록시 현지조사 시도교구 중심에서 지역총무원 체제로 전환 분담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또한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해 득도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2007년부터 동방불교대학에 1년과정의 행자 전수(傳修) 과정을 개설해 동방대학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만 득도자격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상설연수원을 수도권에 만들어 종도들의 교육을 상설화 시킬 것입니다. 승려의 정기 연수교육도 의무화 하고 득도년차에 따라 이수과정을 차등화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을 3회이상 불참할 때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신규사찰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나 창건주나 주지 스님 등을 상세하게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김주일 기자

▲ 무속이나 점보는 행위 등 종단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을 연말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승려윤리헌장과 사찰관리지침을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승려법, 의제법, 법계법, 징계법 등을 개정 보완해 사찰과 승려관리가 엄격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헌종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 황룡사 사건은 종단이 관리감독만 강화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도교구 중심체제가 관리감독에 역부족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말 전국 사찰 재정비 사업이 끝나면 지역별로 사찰분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현재의 시도교구 중심체제에서 지역총무원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무원이 50개 정도의 사찰을 관할하는 전국 총무원들이 한 개의 시도에도 몇 개씩 생겨날 수 있습니다.

### 동국대 운영실태 파악 소위 구성

#### 정관 개정 끝날때까지 활동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이하 종관위) 산하에 '동국대학교 운영 실태 파악 및 정관 개정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종관위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 추천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자재 윤달 성직 도완 스님 등 5명을 위원으로 한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스님이며, 동국대 정관 개정 완료 때까지 활동한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입학전 성오 스님 후임 문제도 소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지난 동국대 이사회에서 류주형 이사 후임으로 선출된 김재기 이사와 연임된 이홍섭 감사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류주형 이사의 경우 종관위의 추천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 이사가 아니라는 점, 종총총회의 반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계종 종헌종법상 동국대 이사는

종관위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김재기 이사는 종관위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됐다.

또 전임 이사인 류주형 이사는 교육이사이거나 김재기 이사의 경우 교육이사가 아니라는 점 또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원운선)도 최근 종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총동창회의 김재기 이사 추천 결의가 없었는지 △동국대 정관 24조 2항 중 '이사는 이교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부분에 해당 된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동국대 서울·경주캠퍼스 교수회가 이사회 영배 스님의 최근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수회는 7월 10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사장 스님은 법안 일방의 이른바 '총추위' 규정 제정을 앞둔 시점에 중앙행정부서를 순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또 "이사장 스님의 현재와 같은 전방위적인 학내 행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안(제안)의 학사관여인 동시에 상임이사 재직시점의 모든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동우 기자

### 불국사 주지직대 총상 스님 교운사 산중총회 무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산중총회 무산으로 공석이 된 제11교구 불국사 주지직무대행에 총상 스님을 7월 10일 임명했다. 총상 스님은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한편, 새 주지선출을 위한 제16교구 교운사 산중총회는 14일 성원미달로 무산돼, 8월 14일 재실시하기로 했다.

조용수 · 배지선 기자

신청자는 7월 31일까지 포교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891

남동우 기자

### 헌법 스님 심판 청구권 각하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7월 12일 제38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청구한 직능직종회의원에 헌법 스님에 대한 심판 청구의 권을 각하했다.

법규위는 "중앙신도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헌종법 위배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의 건'에서 헌법 스님의 직능직종회의원 선출을 문제 삼은 것은 '법규위원회법' 제 22조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원을 내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용수 기자

### 통도사 방장 이번엔 뽑나 8월 10일 산중총회

영축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통도사가 산중총회 일정을 8월 10일로 공고했다. 통도사(주지 직대 현무)는 7월 12일자로 '영축총림방장 후보자 추천의 건'을 안건으로 통도사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편집국장: 위영란 인쇄인: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저점 여시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불교방송 사장 후보 공개모집

**불교방송의 사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방송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 후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추천 대상 : 불교방송 사장**  
\* 임기 4년 중 2008년 7월 5일까지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 수임.
- 자격 요건**  
가. 독실한 불자로서 수계를 득하였거나, 10년 이상의 불교 실행활동 경력이 있는 분.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준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다. 최고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불교방송의 경영혁신을 위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라. 1943년 7월 5일 이후 출생한 분.
-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 및 상벌관련 필히 포함)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본사급 사찰의 주지, 또는 전국 규모의 연합 실행단체장 추천서 1부.  
라. 소정의 양식에 준한 불교방송 경영계획 및 실행활동 소개서 1부.  
\* 소정의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http://www.kbpf.org)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 기간 및 접수**  
가. 제출기간 : 2006년 7월 25일(화) 17:00까지.  
\* 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우 121-7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다. 접수방법 : 제출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 심사 방법**  
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에서 심사.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
- 기타**  
가. 본 공개 모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개 모집은 응모자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02-719-18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1-7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다보빌딩 Tel 02) 719-1855(대) Fax 02) 719-5052 http://www.kbpf.org